

에이즈, 이제 걸려도 죽지 않는다!

미국 에이즈 환자 평균 생존기간 24년 ... 24년 치료비 61만8000달러

에이즈 치료제가 속속 개발됨에 따라 에이즈 환자의 생존기간도 크게 연장되면서 에이즈가 이제는 사형선고가 아닌 만성질환의 하나로 바뀌어가고 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웨일 코넬 의과대학 공중보건학교수 브루스 슈매크먼 박사는 의학전문지 Medical Care 11월호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미국 에이즈 환자의 평균 생존기간은 24년이며 24년에 소요되는 치료비용은 약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1인당 61만8000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슈매크먼 박사는 전국 18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에이즈 환자 1만4000명 중 7000명의 기록을 분석한 결과 생존기간이 24년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한달 평균 치료비는 2100달러(3분의 2가 약값)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에 산입하면 평균 생존기간 24년 동안의 총 치료비는 61만8000달러라는 계산이 나온다는 것이다.

수명이 긴 여성 심장병환자가 평생 치료에 지불하는 비용과 맞먹는 수준이다.

치료비는 환자의 평균 생존기간이 10년이었던 1990년대에 비해 약 40% 늘어난 것이다.

에이즈라면 사형선고로 생각했던 1993년에만 해도 평균 생존기간이 7년에 불과했으나 1990년대 중반에 약 20여가지의 항바이러스제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생존기간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고 지금은 에이즈가 한낱 만성질환의 지위로 전락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1/13>